

타운뉴스칼럼

200년 만의 폭우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2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비가 내렸다. 한반도 전역이 물에 잠겼다. 강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논과 밭이 강물처럼 뒤엉켰다. 소는 허우적거리고, 자동차는 논바닥을 헤엄쳤다. 지붕까지 잠긴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짓이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왔다.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었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게 나라냐?" 는 자조와 함께, 다시 같은 물음이 반복된다. 우리는 왜 또 당했을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도 심각하다. 6월 말부터 7월 초, 미국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뉴욕, 뉴저지, 텍사스, 켄터키 등에서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하루 만에 한 달 치 이상의 비가 쏟아진 곳도 있었다- 도로와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기고, 운전자가 고립되고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었고, 전력과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우가 선진국이라고 피해 가지는 않았다. 또, 큰 도시라고 안전하지도 않다. 지하공간은 특히 위험하다. 예보를 무시하거나 늦게 대피하면 인명 피해가 커진다. 기후 위기로 폭우는 더 강하고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기후 위기의 실체" 가 전 세계인의 삶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상 기후는 더 이상 '이상' 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기후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였을까? 불가항력의 재앙이었을까? 정말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가?

이른바 '200년 만의 폭우' 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앞으로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재해' 가 10년, 5년 주기로 반복될 수 있다고. 문제는 기후 변화 그 자체보다, 그에 대비하지 못한 인류의 구조적 무능이다. 이미 수해 위험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에서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었고, 대비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예고된 재난이었음에도, 우리는 또 당했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빠른 복구보다 '사전 예방' 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부분의 예산과 자원이 피해 발생 후에야 움직인다. 예방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늘 뒷전으로 밀린다. 하지만 재난은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다. 수천억 원을 들여 복구할 것이라면, 그 10분의 1을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삶이 지켜졌을까.

이제는 도시 설계와 정책 방향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 하수·배수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지하 공간의 침수 대비, 물길을 막는 무분별한 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 뉴욕의 지하철이나 서울의 지하상가처럼 침수에 취약한 공간은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과 자동 배수 장치를 갖춰야 한다. '배수 정비' 가 아니라 '기후 적응형 도시 설계' 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재난에는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고통 받는다. 고령층, 저소득층, 농촌 주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난 대응 체계 속에 이들을 위한 특별 대응 매뉴얼과 자원이 없으면, 그것은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같은 재난이 누구에게 더 잔인한가" 를 물어야 한다.

나아가 기후 재난은 국경을 모른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 간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 지자체 단위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실제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기후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직면해야 한다. 재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인프라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무엇보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 기후 변화는 내일의 위협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 "또다시 닥칠 폭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일이다.

기후가 변했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587호 목차

- 타운뉴스 칼럼 ..... 15
- 커뮤니티 소식 ..... 17,19
- 나는야 1.5세 아줌마 ..... 20
- 전문인 칼럼 ..... 22,23,42
- 법률 ..... 25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27
-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 32/51, 32/57
- 함께생각 ..... 37
- 건강 ..... 39
- 부동산/경제 ..... 41
- 칼럼 ..... 44
- 한인업소 안내지도 ..... 46,48,66,68,70
- 요리 ..... 47
- 셀폰으로 본 세상 ..... 49
- 종교 ..... 52
- 국내(Domestic) ..... 57
- 안내광고 ..... 58,59
- 육아 ..... 67
- 영화/신간 ..... 69

기주장의식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자동차·집 보험 문의 환영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메이저 회사 25년 경력  
정확하고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YOUNG K. PARK, JD  
(CA Lic No. 0C71251)

714.340.6903 / 714.715.8088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0년 이상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S, KADA 회원